

200불자 동참... "탑돌이하듯 진지"

겨레의 성지인 경주 남산으로 가족과 함께 향하는 날은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개천절. 한 두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나 성지순례를 기대하는 독자들과 열원 덕인지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쌀쌀한 날씨가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를 연출했다.

오전 10시, 집결장소인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출발한 독자들 비롯 경향 각지로 부터 2백여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일행중엔 엄마손을 잡은 다섯살짜리 꼬마도 있었고 뚱뚱바지에 다리를 저는 아저씨와 백발이 근사한 할아버지도 눈에 띄었다. 한 중년부부는 김천에서 직접 차를 끌고와 성지순례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산자체가 큰 법당

강당에서 경주남산을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상영됐다. 진행을 맡은 사람은 '경주남산사람모임'의 김구석씨(경주시작곡원관리사무소 근무). 20년간 안방 드나들듯 남산을 오르내린 토박이의 설명에는 책에 나와 있지않은 내용이 많았다. '남산에 있는 모든 마애불상 탑 절터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최소의 인공을 가해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모습과 그 바위가 본래 하나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행도중 간간히 탄성

이 배여 나왔다. 1시간30분에 걸친 슬라이드상영이 끝난 후 일행은 삼릉골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두팀으로 나뉘어 각각 삼릉골과 용장골에서 등반을 시작했다.

경주의 산치고 불상과 탑이 없는 산이 있을까라는 남산은 그중에 으뜸으로 꼽는다. 불국토를 열원했던 신라인들은 짐을 짓고 불상을 모시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속세 산전체를 법당으로 만들어버렸다. 남산은 곧 큰법당이고, 자신이 사는 집은 오사체가 되도록 했다. 그리하여 고개만 돌리면 언제라도 불보살의 자비로운 미소와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상 불법의 진리 가까이 머물기를 희망했다.

탑돌이하듯 이의 합장한 두손에는 어떤 원(願)이 숨쉬고 있을까? 남산 자체가 바로 하나의 거대한 탑이고 그곳을 오르는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탑돌이 되는 산. 현대불교 창간 2주년을 맞아 경주남산성지순례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탑돌이를 하듯 산에 올랐다.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이 끊이지 않아 냉골이라고도 하는 삼릉골을 따라 오르다 보니 단정하고 외연한 모습의 석불좌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자비한 미소는 볼일이 없다. 머리부분이 잘려나간 채로 계곡에 파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집다리로 쓰이다가 지금의 자리에 옮겨졌다는 설명이다. 산입구에서 단순한 산행용으로 생각하고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 무언가 의미가 실리기 시작했고 산을 오르며 만나는 바위나 수목들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면 어디서든 동그런 부처님의 미소를 만날 것 같고 자애로운 응성이 들릴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목없는 불상을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마애선각육존불상. 병풍처럼 펼쳐진 두개의 바위면에 선각된 모습은 마치 도화지에 그린 듯이 부드럽고 정교하여 보는



◇ 훼손된 부처님 얼굴을 시멘트로 보수한 삼릉계곡 석불좌상 앞에서 참가자들이 안내를 맡은 김구석씨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의 불적을 복원하는 것은 불자들이 스스로가 자비보살행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섯살 꼬마도 백발노인도 '한마음 발길' 목·손 훼손 불상 대할때 안타까운 탄식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동쪽면에 새겨진 석가삼존상은 결구부좌한채 설법하는 모습이며 좌우에 협시보살이 선채로 웅장하고 있다.

발길마다 부처님 미소

서쪽면에 새겨진 아미타삼존상은 무릎 꿇은채로 꽃공양을 올리는 관음과 대세지 두 협시보살 가운데서 선채로 벽면을 걸어나오는 모습이다. 아미타여래부처님이 서 있고 보살들이 앉은 자세로 있는 특이한 모습을 내영아미타여래(來迎阿彌陀如來)라 하여 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마중나오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옛 신라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빌며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며 아미타부처님은 여기서 와서 이승의 부처님인 석가모니부처님의 인수인계를 받아 고히 눈을 극락으로 떠려 갔으리라..

마애선각육존불상을 지나 한참 가다보니 또 하나의 선각여래좌상이 나타났다. 몸체는 선각을 하고 얼굴은 돌을새김질한 이 불상의 얼굴모습은 위엄이 전혀 없어 의구심마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남산부처의 얼굴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아낙네의 얼굴을 닮아 있다는 안내자의 설명에 비로소 수긍이 갔다. 선각여래좌상을 지나 계곡을 내려가다보니 얼굴 아래 부분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흉칙한 모습의 석불좌상이 나타났다. 남산불적의 극치를 보듯 했다. 시멘트로 무성의하게 보수한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금오봉 정상

을 깬 뒤 미군 헬기장, 남산 기슭에 자리잡은 경주교도소, 무분별한 분묘 등은 남산을 훼손시키는 주범들이다.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1km정도 산을 오르니 남산에서 가장 높은곳에 자리잡은 상선암이 나타났다. 배낭을 풀고 약수를 한사람 돌아가자 머리 가 회긋한 노인 3명이 연신 땀을 흘리며 올라왔다. 대구에

서 이들을 모시고 왔다는 최미리씨는 "아버지와 친구분들인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상선암 뒤편에는 높이 5.2m, 무릎폭 3.5m되는 남산불상중 가장 크고 조각이 우수한 마애석가여래대불좌상이 반갑게 맞아준다.

마애불을 뒤로하고 능선을 오르다 보니 상사암이라는 영험있는 바위가 나타났다. 높이 13m, 길이 25m쯤되는 이 바위는 옛날부터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정겨운 장소였다. 일행들은 저마다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 보았던 사랑을 떠올리며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었다. 상사암에서 금오산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에서 두팀은 반갑게 조우했다. 찬불가를 흥얼거리며 걷는사람도 있었고 가족끼리 곱아 내려다보는 넓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탄해진 길을 쉬엄쉬엄 걸다보면 어느새 (금오신화)의 고행인 용장사가 자리했던 금오봉에 이른다.

구의 불상 그리고 71기의 석각이 있는 남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화재다. 흔히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할수 없다'는 말이나 '남산이야말로 경주에서 유일하게 신라스러움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말에 실감이 갔다. 남산(男神)이 변해서 된 바위산인 남산은 아담하지만(494m) 짙은 눈썹과 뚜렷한 윤곽을 지닌 미남자에 비유될 법했다.

무성의 시멘트보수 '눈살'

용장사터 마애여래좌상과 석불좌상에 대한 참배를 끝내고 하산을 시작했다. "경주남산의 불적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불상의 흠어진 조각들을 모으고 탑을 다시 세우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불자를 스스로가 사라진 불상의 손이되어 세상에 필요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불상의 사라진 얼굴을 대신해 세상을 굽어 살펴보는 자비로운 미소와 눈을 가지고 보살행을 한다면 진정한 남산 복원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김구석씨가 일행들을 향해 던진 화두이다. 남산의 전설을 가슴 가득 담고 남산에서 느낀것처럼 일상속에 살아있는 불법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오는 길에 자주 남산을 보게되는 것은 왜일까요?

경주=이윤호·천미희 기자



◇ 본지 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된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에는 2백여명이 참가. 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해솔이네는 식구들끼리 만오기 아끼워 시촌이모네 가족까지 함께 참가했다.

은가족 참여 해솔이네

경주남산 성지순례에 은가족이 함께한 해솔이네(13세·용계초등학교 6년)는 얼마 장영순(39)씨가 해솔이를 가진 지 4개월 되던때 처음 남산에 오른후 12년만에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식구가 하나 더 늘어 동생 다솔(9세)이도 함께 왔다. "늘 한 번 더 오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남산순례의 첫 추억이 너무 좋아 버르르 오게 된다는 아빠 배광호씨(40·대중급속공고

교사)는 이번에 윈을 훈생이라고 한다. 그동안 불국사와 감포는 자주 갔어도 남산은 늘 지나치기만 했다. 식구끼리만 할 수 없었던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해솔·다솔이에게는 귀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코와 목이 잘려나간 불상앞에서는 은가족이 마음 아파했다. 산행 도중 발을 삐었으나 큰 고통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하는 얼마 장씨는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생히 느껴지는 듯 했어요." 남산의 유적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미와 조화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해솔·다솔이에게는 귀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코와 목이 잘려나간 불상앞에서는 은가족이 마음 아파했다. 산행 도중 발을 삐었으나 큰 고통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하는 얼마 장씨는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윤)

15년째 남산 길잡이 김구석씨

남산안내 1순위 "언제든 불러주세요"

본지가 지난 6~7개월(82~87호) 6회에 걸쳐 집중연재한 '남산 지키자'의 마지막 순서 '남산으로 떠나자'의 일환으로 실시한 창간2주년 기념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의 현장 안내를 맡은 김구석씨(경주시작곡원관리사무소 근무). 고등학교 1학년때 경주불교학



생회의 일원으로 남산에 올랐을 때의 가슴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불상이 많은 것에도 놀랐지만, 제대로 있는 부처님보다 파괴된 부처님이 더 많았습니다. 웬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기억이 그를 남산사람으로 만들었다. 15년전부터는 거의 매일 어디서든 남산을 찾았으며, 슬라이드에 남산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남산의 모습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지난 87년에는 '경주남산 사진전'을 경

주와 울산 부산 대구에서 열었다. 이때의 사진들은 윤경렬선생의 <경주남산.2>(대원사)와 <겨레의 땅 부처님 땅(불지사)에 제공했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남산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큰지혜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모든 일의 1순위가 남산 안내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061)773-8077

경주=정성운 기자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자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서

1. 문수세리소설 마하반야마라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달력크기/26cm×26.7cm 보급특가 1부당 /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